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PRING 2014 봄호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1-80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tongsinsa.com





사 진 | 상주 침천정(枕泉亭)
출 처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한태문 교수 제공

일본에서 돌아온 1624년 통신사 부사 강홍중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상주(尙州) 객사에 머물 때 숙박한 곳. 지금은 동헌의 문루(門樓)인 태평루와 객사인 상산관(尙山館) 등과 함께 임란복천전적지 안에 있다.

기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SPRING 2014 봄호

CONTENTS

- 권두칼럼** 04 동아시아 시간을 거슬러 공간을 가로지르는 상상과 실현, 조선통신사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 서인화
- 성신교린** 06 감동을 부른 조선통신사 인형 행렬 전시_ 특별전 '쓰시마번과 조선통신사'에서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 관장 | 오호리 사토시
- 통신사 24時** 09 2014 조선통신사축제
(재)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팀
- 기획특집** 12 히로시마(広島)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조선통신사_ 도모노우라(鞆の浦)의 한·일 정상 비독대회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한태문
- 조선통신사 이야기** 16 시즈오카에서 체험하는 통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전 평택대 교수, 근세한·일관계연구가 | 오바타 미치히로
- 21C 조선통신사** 20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사무국장 | 아비루 마사오미
- 최화수의 문화읽기** 22 혐한(嫌韓) 시위와 한류(韓流) 문화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 최화수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24 좋은 파트너십으로!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이사장 | 마츠바라 카즈유키
- 조선통신사 NEWS** 26 조선통신사역사관 뉴스
(재)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팀
- 그림으로 찾아가는 조선통신사** 27 에도시대 일본의 지배계급을 매료시켰던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부경대 사학과 교수 | 박화진



〈표지 설명〉

출 처 |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역음

작품명 | 선착장 모형과 아라이세키소[新居關所] 전경

세키소는 일본의 검문소로, 646년 다이카개신[大化改新] 때부터 시작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00년대부터 '아라이세키소'는 '하코네세키소[箱根關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검문소이자 혹독한 검문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아라이세키소'에 대한 통신사의 관심은 1636년 사행 때부터 시작되었다.

발 행 일 2014. 4. 14 **발 행 인** 남송우

발 행 처 (재)부산문화재단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 744. 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문화교류팀 Tel 051. 744. 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다인커뮤니케이션즈 Tel 051. 242. 4838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4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시간을 거슬러 공간을 가로지르는 상상과 실험, 조선통신사

東アジアの時間とスペースを超える想像と実験、朝鮮通信使

国立釜山国楽院が今年から朝鮮通信使祭りに参加することにした。国楽院が朝鮮通信使祭りに関心を持つのは国楽院と朝鮮時代の宮中音楽機関である掌握員の関連性を越えて朝鮮通信使祭りが持続的な日韓伝統芸術交流の足場になるだけでなく、国楽を東アジアレベルで幅広く研究し、実験できる契機になると判断しているためである。



서인화 •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徐仁華 • 国立釜山国楽院 院長

한·일 예술 교류의 발판,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의 거점도시로서 부산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곳의 조선통신사 축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요즘처럼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된 상황에서 양국 문화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올해부터 국립부산국악원도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악원이 조선통신사 축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국악원과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인 장악원의 연관성을 넘어서 조선통신사 축제가 지속적인 한·일 전통예술 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악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폭넓게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쌍방향 교류 공연의 본격적 시작

국립국악원의 한·일교류는 해방 후 1964년 요미우리신문사 초청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국립국악원 한·일교류 사상 첫 공연일 뿐 아니라,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바다 건너 이국 땅을 처음 밟은 공연이었다. 이때 공연단 30여 명이 수제천, 검무, 태평가, 가야금산조 등을 도쿄에서 2회, 나고야에서 1회, 오사카에서 1회, 교토에서

1회 공연했는데, 이 도시들은 모두 조선통신사가 머문 곳이다. 그리고 1년 후 1965년 한국과 일본은 비로소 정식 수교를 맺었다. 이후 국립국악원의 해외 공연은 점차 전 세계로 뻗어 갔고, 일본 공연 역시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연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국악원과 일본 궁내청의 악부(樂部)가 단체 차원에서 교류 공연을 한 것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쌍방향 교류 공연은 많지 않다.

2008년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이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한 쌍방향 교류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올해는 작년보다 국악원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해 온 일본 전국방악연합회(全国邦楽奏奏協会),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이 추천하는 조선통신사 지역의 일본 팀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한·일 악기, 즉 가야금과 고토, 대금과 샤쿠하치, 사미센과 해금 등을 비교하는 워크숍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적당한 때 국악원이 조선통신사처럼 배를 타고 일본의 옛 도시에 가서 국악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0여 년의 조선통신사 음악

교류 공연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통신사라는 역사적 콘텐츠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선통신사는 분명한 출발점이다. 옛 조선통신사 수행 악공들은 어떤 곡들을 연주했을까.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가 기록한 일동기유(日東記遊)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쓰시마 도주(島主) 소요시요리(宗義和)가 그의 집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들려주기를 요청하므로 (일행이) 군악을 한차례 크게 연주하고 다시 여민락을 연주하게 하여 흡족하게 즐기고 돌아왔다.” 이 중 여민락은 실록에 따르면 세종대(1418-1450)에 대왕이 작곡한 신악(新樂) 중 하나로, 궁중 의식과 잔치, 행진 음악뿐 아니라, 민간 풍류와 춤 음악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널리 연주된 곡이다. 이 여민락이 1877년 일본에서는 어떤 형태로 연주되었는지 상상하면서 오늘의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가 1607년부터 200여 년간 왕래했으니 이 음악에는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조선통신사 왕래가 끊긴 지 200여 년이 흘렀으니 당시의 공연과 현재 음악과 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었을까.

동아시아 음악 교류사 밝힐 기회

일본측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지역뿐 아니라, 인접 도시와 국가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예를 들면, 류큐왕국에서는 조선에서 그랬듯이 에도(동경)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쇼군 앞에서 연주한 음악이 우자가쿠(御座樂)이다. 우자가쿠는 일찍이 중국이 류큐왕국에 하사한 것으로 1879년 류큐왕국이 막을 내리면서 소실되었다. 그런데 1993년 이 음악의 복원연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류큐왕국이 1796년 나고야에 기증한 악기를 복원하고, 중국 남부 관련 악보를 조사하고, 유사한 대만의 난관(南管) 음악을 학습하여 현재 이 음악이 연주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식의 퓨전인 이 음악의 복원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 학자와 악기 제작자, 연주자들도 협력하였다. 한국의 아악과 당악도 중국에서 전래되어 연주되어오는 상황이어서 우자가쿠와 상호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음악 교류사의 면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통신사 시대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일교류가 더욱 활발했던 고대로 관심을 확장할 수도 있다. 신라, 고구려, 백제, 발해의 음악은 일본에 흘러들어가 그들의 궁중음악인 가가쿠(雅樂)의 중요한 갈래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고마가쿠(高麗樂)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일본화되었다. 한국에서 연주되어 온 고대 궁중음악과 춤도 변화하여 현재 서로 많이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를 소재로 옛 한반도의 춤과 음악을 상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일간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립부산국악원이 동아시아 전통예술의 과거와 미래로 가는 공연과 연구의 조선통신사 여행길에 올랐다. 부산문화재단, 일본 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이 여행길에 순풍이 불어 한·일 전통예술계에 보탬이 되고 차가운 한·일관계마저 훈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김기수(金綺秀), 일동기유(日東記遊) 제2권, 연음(燕飮),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Etsuko Ogido Higa, “The Project to Restore Uzagaku, the Court Music of the Ryukyu Kingdom”, The Ryukyuanist No.71 Spring, 2006

감동을 부른 조선통신사 인형 행렬 전시

특별전 「쓰시마번과 조선통신사」에서

感動を呼んだ朝鮮通信使人形行列展示 - 特別展「対馬藩と朝鮮通信使」から



오호리 시토시 •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 관장
大堀 哲 • 長崎歴史文化博物館 館長

長崎歴史文化博物館では、2013年10月26日から12月15日まで特別企画展「対馬藩と朝鮮通信使」を開催した。本特別展開催に当たっては、釜山博物館、釜山文化財団の格別なご協力を得て実施し、多大な成果を挙げて閉幕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展覧会を通して、260年という長きにわたって日韓の隣国同士が良好関係を続けるうえで朝鮮通信使の果たした役割の大きさや、対馬藩儒学者・雨森芳州の唱えた「誠心の交わり」の重要性について再認識する機会になった意義は極めて大きい。今後の日韓交流の推進に大いに役立てていきたい。



조선통신사의 중요성 재인식 기회

2013년 5월 13일 서울에서 10년 만에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재개소 기념행사가 한국과 나가사키측의 관계자를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사무소가 부활함에 따라 양국의 교류는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날인 14일 우리는 부산박물관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하여 2013년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될 특별전 '쓰시마번과 조선통신사' 전시를 위해 자료를 빌리는 등의 협력을 의뢰할 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다행히도 부산박물관과 부산문화재단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서, 전시회 개최에 대한 준비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일본과 에도시대에 유일한 대등 외교를 맺고 있던 조선 왕조에 대하여 쓰시마번 종가(宗家)는 외교·무역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종가 문서가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한·일 우호 교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동시에 한·일 양국의 대등 외교의 상징이며, 수백 년 동안 '진정한 우정'이라는 문화 업적을 남긴 조선통신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도 본 전시회의 중요한 목표이다.

성신교린의 정신 상기할 필요

조선통신사는 무로마치시대에도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에도시대에는 총 12회나 일본을 방문했다. 이 에도시대의 약 2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웃 나라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쓰시마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가 주장한 '성신교린'의 외교 정책과 그 정신에 따라 양국이 상호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성신교린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종종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교류의 길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로써 교류한다'라는 성신교린의 정신을 상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한다.



한·일 양국의 귀중한 자료 대거 출품

본 전시는 '쓰시마번 중가' 15대까지 번주의 번(藩) 운영 및 조선 통신사 초빙 등의 모습을 전시하였다. 제1장 '화려한 조선통신사와 에도시대의 한류 붐'에서는 통신사 행렬을 그린 병풍이나 에마키(두루마리 형식의 그림) 및 일행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와 사절단에게 접대했던 요리, 조선통신사가 남긴 서화와 춤 등을 전시하였다. 제2장 '쓰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한·일 외교·무역 교류의 무대가 된 쓰시마번이 설치한 부산의 왜관 모습 등을 전시하였고, 제3장 '쓰시마의 자랑·기록을 지켜라'에서는 쓰시마번 기록물의 박력과 매력이라는 주제로 전시하였다.

조선통신사의 의미 이해에 도움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문화재단의 소장품으로서, 문미순 교수 및 소향회에서 제작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한지인형' 316점을 한꺼번에 공개했는데 이는 바로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였으며, 획기적인 전시로서 본 전시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관람객 대부분이 한지인형 행렬전시에 매료되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 외에 1680년대 당시 동래부사로 초량 왜관의 관장이었던 이덕성 초상화, 조선통신사 수행원 일행이 일본에 남긴 업적의 서화 등, 부산박물관이 출품한 귀중한 자료 10점도 본 전시회를 빛나게 한 중요한 유물이었다.

관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왜관도[倭館圖]'나 '매일기[毎日記]', '국서 위조 문서' 등에도 관심이 높았지만, 특히 조선통신사 한지인형은 시각적인 자료로서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 많은 조선통신사 행렬 한지인형을 나가사키에 대여해 준 데 대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감동과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양국 우호 관계에 기여해야

특별전 이외에 강연회나 강좌, 워크숍, 사적 돌아보기, 조선통신사 관련 영화 상영회·사진전,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등의 행사도 개최하였다. 그리고 '나라 만들기 심포지엄 - 동아시아와의 교류·협력의 역사에서 본 조선통신사'라는 테마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부산문화재단 남송우 대표이사는 조선통신사에 관한 역사가 한·일 양국의 우호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새로운 역사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어쨌든 특별전과 관련 행사 등을 부산박물관 및 부산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고 폐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15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에 대한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2014 朝鮮通信使祭り 조선통신사축제

조선시대 한·일 양국의 평화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2014 조선통신사 축제'가 오는 5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간 용두산공원 및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 기간 동안 용두산공원 광장에서는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한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 다크이 인형 기획 전시'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2일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조선통신사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같은 날 저녁 용두산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조선통신사의 밤' 행사가 뮤지컬 형식으로 꾸며진다.

한편, 1,500여 명의 한·일 예술단, 시민참가자, 동호회, 기업 등이 참가하는 축제의 메인 행사 '2014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은 3일 선도행렬을 필두로 조선통신사 행렬, 일본 행렬, 부산 행렬이 광복로 일대를 수놓는다. 이 열기를 이어 용두산공원 특설 무대에서는 기획 공연 형태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원식'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는다.

통할 통(通), 믿을 신(信), 믿음을 소통하는, 또는 믿음으로 소통하는 사절단인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즐기는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축제의 의미를 뛰어넘어 최근 냉랭한 한·일 양국 관계 속에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가 묻어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 조선통신사 축제

일시 | 2014년 5월 2일(금) ~ 5월 4일(일)
장소 |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원, 국립부산국악원,
부산광역시청 등

동봉된 스티커의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용두산공원 광장행사

일시 | 2014년 5월 2일(금) ~ 5월 4일(일)
10:00~18:00

장소 | 용두산공원 광장

내용 | 체험 행사, 조선통신사 연고도시 관광물산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 닥종이 인형 전시,
청소년 필담창화, 도전! 골든벨



조선통신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5월 2일(금)
13:00~18:00

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주제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관련 연구발표



조선통신사의 밤

일시 | 2014년 5월 2일(금)
17:30~21:00

장소 | 용두산공원 특설무대

내용 | 3使 임명식, 점영식,
해신제(뮤지컬 형식 재현),
한·일 예술단 교류 공연



2014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일시 | 2014년 5월 3일(토)
13:00~18:00

장소 |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원

내용 | 거리공연(13:00),
출발식(14:30),
행렬(15:00)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원식

일시 | 2014년 5월 3일(토)
18:30~21:00

장소 | 용두산공원 특설무대

내용 | 일본 예술단 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



한·일 문화교류 공연

일시 | 2014년 5월 4일(일)
19:00~21:00

장소 | 국립부산국악원

내용 | 한·일 양국의 전통예술단
초청기획공연





한대문 ·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韓泰文 · 釜山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히로시마 広島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조선통신사

도모노우라[鞆の浦]의 한·일 정상 바둑대회 広島で復活している朝鮮通信使 - 鞆の浦の日韓トップ囲碁対局



히비 화가가 그린 조선통신사 배

広島で1年間滞在しながら接した朝鮮通信使の関連行事中の一つである鞆の浦で行われた『日韓トップ囲碁対局』を紹介する。行事地域である鞆の浦は下浦刈を離れて江戸に向かっていた朝鮮通信使の路程地であった。たとい小さな行事である囲碁対局だが、朝鮮通信使の訪問を歴史的な事件として称える鞆の浦地域住民の歴史と伝統を愛する心が伝え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小さな行事を皮切りに近くても時には遠い隣国である日本と新たな善隣友好の場が開けることを期待してみる。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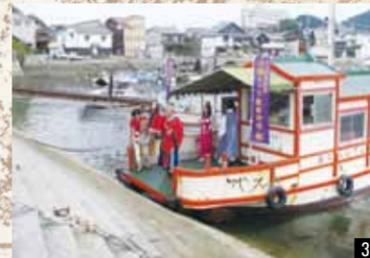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폭돛과 바다 위 도리이[鳥居]로 유명한 미야지마[宮島]가 있는 곳, 히로시마. 히로시마를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지식은 대체로 이쯤에서 머물고 만다. 하지만 서남 일본의 중심에 위치한 히로시마는 동서 132km, 남북 119km에 이르는 8,479km²의 면적에 인구 약 286만 명으로 주코쿠[中国]와 시코쿠[四国]지방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에도[江戸]시대에는 조선통신사의 바닷길 노정에 포함되었던 대표적인 항구 마을인 시모카마가리[下浦刈]와 도모노우라[鞆の浦]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선통신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조선통신사 선양 사업도 가장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도시이다.

오늘은 필자가 히로시마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접한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들 중 하나인 도모노우라에서 펼쳐진 한·일 정상바둑대회(2013. 9. 28)를 소개할까 한다. 행사 지역인 도모노우라는 시모카마가리를 떠나 에도로 향하던 조선통신사의 다음 노정지였다. 1420년 회례사였던 송희경이 <흥비를 떠나 도모량으로 향하면서(發胸比向都毛梁)>라는 시를 남기고 있어 조선 전기부터 조선통신사가 머문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바둑대회 포스터



선착장에 도착하는 조선통신사의 배

조선통신사와 바둑

‘21세기의 조선통신사-한·일정상바둑대회’가 열리는 도모노우라로 가기 위해 후쿠야마[福山]역 앞 정류장에서 도모항[鞆港]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다. 이 행사는 후쿠야마시가 조선통신사를 통해 문화교류를 활발히 했던 옛 조상들의 일을 양국의 공통된 전통문화인 바둑을 통해 오늘날에 계승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2010년 ‘바둑으로 서로 통하는 마음이란 슬로건 아래 야마키 미오[山田規美夫] 9단과 유창혁 9단이 대국을 시작한 이래 이 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조선통신사와 바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수행원에 뽑힌 사람도 모두 대단한 문장과 함께 아는 것도 많았다. (중략)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술 잘 마시는 사람, 장기나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들까지 한 가지 기술로 국내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모두 함께 빠르게 되었다. - 박지원 <우상전>

박지원이 당시 조선통신사의 구성원을 소개한 글이다.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수행원 가운데 국내에서 장기나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도 포함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었다는 기록은 사행록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643년 사행 때 종사관 신유가 초량의 배 위에서 바둑을 두었고, 1682년 사행에는 역관 홍세태가 가미노세키[上関]로 향하면서 배 안에서 바둑과 장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모카마가리의 쇼토엔[松濤園]이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리 그림인 <조선진라이초비젠고치소센코랏츠[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列]>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그림은 오카야마[岡山]현 히비[日比]에 사는 지역 화가가 항구에 도착한 조선통신사 배를 망원경을 통해 보고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특히 돛대 아래 바둑판과 바둑알집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선 배에는 씨름하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다. 아마도 히비의 화가가 조선통신사의 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선택, 확대하여 그린 결과인 듯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조선통신사가 바둑을 즐겼으며, 일본인들 눈에 비친 바둑은 조선통신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리에서 펼쳐진 조선통신사 행렬

약 30분을 달려 종착지인 도모항에 도착하니 즐겁게 늘어진 배들과 함께 거리는 벌써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조선통신사로 분장한 한국 기사들을 환영하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호메이슈[保命酒] 가게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호메이슈는 오사카의 의사 나카무라 키치베[中村吉兵衛]가 한약재 16종류를 넣어 도모노우라에서 처음으로 빚은 약용주로 옛날 조선통신사를 접대한 술이기도 하다. 시음을 권하는 주인의 청에 못 이겨 한 모금 마셔보니 무척 달다. 그야말로 약주는 될지 언정 술꾼들이 좋아할 술은 아닌 듯하다.



4 조선통신사 환영식에서 기념촬영. 정사는 히로시마 총영사가 맡았다.



5 행렬을 끝낸 뒤 도모소학교 학생들의 기념촬영



6 후쿠젠지



7 다이초로에서 본 바다풍경. 벽 위엔 이방언이 쓴 '일동제일형승' 편액

골목을 빠져 나오니 선착장과 함께 예전에는 등대 노릇도 했던 조야토[常夜灯]가 모습을 드러낸다. 광장에는 영화제에서 익히 보던 붉은 카펫이 깔려 있다. 이윽고 도모노우라와 센스 이치마[仙醉島]를 오가는 연락선에 행사 관련 깃발로 꾸민 조선통신사 배가 물살을 가르며 선착장으로 들어선다. 정사로 분장한 히로시마 한국총영사와 한국측 대표 기사가 배에서 내리자, 후쿠야마 시장과 일본측 대표 기사가 반갑게 맞는다. 국서교환식을 끝낸 일행은 이내 민단 청년들이 주축이 된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골목길을 빠져 나와 행렬의 종착지인 공민관으로 향한다. 도모노우라소학교 학생들도 한복과 기모노를 입고 행렬을 따른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눌하지만 큰소리로 환영하는 우리말이 반갑게 귓전을 두드린다. 위를 올려다보니 대국이 예정된 후쿠젠지[福禪寺] 담벼락 위에 지역민들이 ‘환영, 21세기의 조선통신사’라고 쓴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고 서 있다. 직원들이 나와 깃발을 흔들고 있는 호텔을 지나자 이번엔 지역민과 요양원에서 나오신 듯한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비롯한 의자에 앉아 ‘환영’이라 새겨진 깃발을 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그 옛날 조선통신사를 맞던 분위기가 오롯이 전해져 온다. 비록 15분의 짧은 행렬이긴 했지만 조선통신사를 맞는 지역민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니 가슴 한 편이 뭉클해 온다.

조선통신사의 향취가 곳곳에 밴 후쿠젠지

행렬 후 점심을 먹고 대국이 펼쳐질 후쿠젠지로 향한다. 후쿠젠지는 950년경에 세워진 진언종 사찰로, 1636년 사행 이후 정사, 부사, 종사관 등의 숙소가 된 곳이다. 특히 1690년경에 영빈관으로 마련한 ‘다이초로[対潮樓]’가 유명하다. 후쿠젠지가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당시 후쿠야마번은 밤에 도착한 조선통신사를 위해 선착장으로부터 후쿠젠지까지 겹자리를 깔고 다섯 길음마다 장대 위에 등불을 달아 낮처럼 환하게 밝혔었다. 오늘은 대국이 오후 2시에 있는 지라 그때와 다르지만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그 옛날 못지않다.

후쿠젠지로 들어서니 ‘일동제일형승(日東第一形勝)’이라 새긴 기념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는 1711년 사행 때 종사관 이방언이 다이초로의 경치를 본 후 남긴 휘호에서 따온 것이다. 후쿠젠지의 본당으로 오르니 ‘관음당’이란 현판이 중앙에 걸려 있다. 관음당은 후쿠젠지의 옛 이름으로, 모시고 있는 본존이 천수관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늘의 행사장이라서 그런지 다소 어수선한 다이초로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이 확 밝아진다. 이방언의 친필을 목판에 새긴 ‘일동제일형승’ 편액 아래 넓게 열린 창 사이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그만 섬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마냥 다소곳이 담겨 있다. 1711년 사행의 부사 임수간이 “넓은 바다와 아득한 산이 눈앞에 활짝 열렸다.”고 찬탄하던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게다가 사방팔방의 벽에 가득 걸린 것은 모두 조선통신사의 유묵(遺墨)들이다. 먼저 ‘대조루’란 편액은 1748년 사행 때 자제군관으로 참여했던 홍경해의 글씨다. 홍경해는 정사 홍계희의 아들로, 홍계희는 누각의 이름을 ‘대조루’라 명명한 뒤 아들에게 큰 글씨로 쓰게 했다. 홍경해는 새벽달이 올 때가 되어서야 글씨를 써서 주지스님에게 주었다고 <수사일록>에 적고 있다. 그 왼쪽에는 1711년 사행 때 세 사신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후쿠젠지에 머물면서 각각 지은 시가 역시 목판에 새겨져 해설판과 함께 걸려 있다. 그 왼쪽에는 1748년 사행 때 세 사신을 비롯한 아홉 명의 사행원이 읊은 시도 걸려 있는데, 특이하게도 인쇄용 목판이다. 이곳 사람들이 조선통신사가 남긴 유묵이 훼손될까 염려해서 영원히 간직하고자 목판으로 새겼다고 한다.

바둑으로 되살아난 ‘21세기의 조선통신사’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대국을 벌이는 김미리 2단과 요시하라 유카리 [吉原由香里] 6단이 행사장으로 들어선다. 한국의 김미리 기사는 2008년에 입단하여 2012년 여류명인전에서 준우승을 한 한국의 대표 여류기사이다. 일본의 요시하라 기사는 2007년부터 여류기성전에서 3연패를 할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여류기사다. 두 여류기사가 ‘일동제일형승’ 편액 아래 마련된 바둑판 앞에 자리를 잡자마자 식전 행사가 시작된다. 오늘 행사가 지닌 의의를 소개하는 주최자와 히로시마 총영사의 인사에 이어 도모노우라소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가야금 연주단이 일본 가야금을 연주하며 오늘의 행사를 축하한다.

드디어 본 행사가 시작되자 행사장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미리 기사가 첫 돌을 집어 바둑판에 놓자마자 요시하라 기사 역시 빠르게 첫 돌을 바둑판에 내려놓는다. 그 옛날 조선통신사를 통해 양국을 대표하는 문사들이 다이초로에서 시를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바둑판을 통해 문화교류가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약 10여 분이 지나 대국장을 빠져 나와 관중을 향해 오늘의 대국을 생중계하며 해설까지 하는 공민관으로 향한다.

공민관에 들어서니 접수대에 놓인 티셔츠가 한눈에 들어온다. 티셔츠의 가슴 왼쪽편에는 행사 로고가, 등판엔 요시하라 기사의 ‘소복(笑福)’과 김미리 기사의 ‘여유(餘裕)’라는 휘호가 새겨져 있다. 공민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연신 왼쪽에 놓인 두 기사의 대국 생중계 화면을 결눈질하면서 해설을 바둑판을 배경으로 이시쿠라 노보루[石倉昇] 9단이 해설을 하고 있는 중앙 무대를 주시하고 있다. 대국장의 분위기에 못지않게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바둑엔 문외한인 필자는 주변의 사찰에서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슬며시 공민관을 빠져 나와 골목골목을 헤맨다.

얼마나 흘렸을까. 종종걸음으로 다시 공민관으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대국은 끝이 났다. 김미리 기사도 대국장을 나와 공민관에 와 있다. 결과를 물었더니 곁에 서 있던 김지수 3단이 4집 반으로 이겼으며 대신 대답을 한다. 김지수 기사는 충암중학교 3년생으로 내일 벌어질 ‘한·일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후쿠시마 아키라[福島あきら] 일본 대표와 대국을 펼칠 한국대표 기사다. 비록 조선통신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어린 소녀지만 옛날 조선통신사처럼 바둑으로 문화교류를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당차게 말하는 모습이 여간 대견스럽지가 않다.

귀로에 오르며

어느덧 어둠이 깔린 거리엔 귀가를 서두르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면서 문득 낮 행렬에서 만난 초등학생들과 공민관에서 해설을 경청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비록 작은 행사인 바둑대회지만 조선통신사의 방문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리는 도모노우라 지역민의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노독에 지친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 이런 작은 행사에서 물꼬를 터 가깝고도 때론 먼 이웃인 일본과 새로운 선린우호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8 대국 모습



9 공민관에서 열린 대국 해설회



10 공민관 앞에서 김미리, 김지수 기사와 함께

조선통신사와 시즈오카시

시즈오카에서 체험하는 통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朝鮮通信使と静岡市

静岡で体験する朝鮮通信使の時代への「タイムトリップ」



순푸성 공원에 복원된 다츠미 야구리[巽櫓]. (필자 촬영)



오바타 미치히로 • 전 평택대 교수,
근세한·일관계연구가
小幡 倫裕 • 前 平澤大 教授,
近世韓日關係研究家

静岡県静岡市には、駿府城、清見寺、宝泰寺、薩埵峠など、時代を超えて通信使と同じ空間を共有できる史跡が多い。日常の中に日韓両国の友好関係の足跡が残っていることの意義を、私達はもう一度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静岡市ではこうした史跡と関連して、通信使を通じた相互交流を実現しようという行事や市民の活動が見られている。今後も、朝鮮通信使の意義に対する再証明が期待されている。

• 순푸성에서 체험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조선 사신들의 만남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 静岡市] 중심부에 순푸성 공원[駿府城公園]이라는 성터가 있다. 시즈오카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이 공원에서 매년 4월에 '시즈오카 마츠리[静岡祭り]'라는 큰 축제가 열린다. 시즈오카시의 주최로 1957년에 시작된 이 축제에서 2012년부터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축제 중지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졌지만 이후 매년 재현되고 있다. 올해도 주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영사가 정사(正使) 역을 맡을 예정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 행렬이 재현된 이유는 이 순푸성에서 만년을 보낸 에도막부 초대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1607년 음력 6월 20일에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국교를 재개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파견된 사절단인 회담겸쇄환사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이때 부사였던 경섭(慶運)의 사행록 <해사록>을 손에 들고 이 성터에 간다면, 시대를 초월하여 양국의 역사적 만남을 상상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세이켄지에서 체험하는 조상들과의 대화

필자가 사는 시즈오카시에는 통신사와 관련된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유적이 몇 군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시즈오카시 오키즈[興津]에 있는 코고잔 세이켄지[巨巖山 清見寺]이다. 이곳은 '조선통신사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국가 지정 유적이 되어 있고, 사행원들이 쓴 시문, 편액, 그림, 그리고 문서 등이 많이 남아 있어 통신사 기록의 보고(寶庫)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왔다.



여기서 잠깐 조선통신사 사행원이었던 남용익·남성중 부자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1655년 통신사 종사관으로 세이켄지를 방문한 남용익은 바다를 앞에 둔 이 절의 맑고 그윽한 경치를 보고 강원도의 낙산사 못지않다고 칭찬하고 '밤에 세이켄지를 지나며'라는 한시를 남겼다. 그로부터 56년 후 그의 아들 남성중이 1711년 통신사 서기로 세이켄지를 찾아갔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한시를 보고 남성중은 '세이켄지에서 남긴 시운을 울며 따라 짓다'라는 제목의 한시를 읊었다. 오늘날 남용익의 한시가 새겨진 편액이 세이켄지 본당인 오호조[大方丈]에 있고 그의 필적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중이 쓴 한시도 묵서(墨書)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국의 사찰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대화를 나눈 장면이다. 남용익·남성중 부자 이외의 통신사 사행원들 중에도 세이켄지에서 자신의 조상이 남긴 글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마음속에서 과거와의 대화를 즐겼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중 통신사 사행원들의 후손이라면 꼭 세이켄지를 방문하였으면 한다. 조상들이 유람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조상들이 가진 감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오늘날의 시즈오카시와 통신사

순푸성과 세이켄지 외에도 통신사의 휴게소로 사용된 호타이지[宝泰寺]나 통신사를 위해 정비된 삿다토우게[薩埵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지산의 아름다운 조망으로 유명함] 등 통신사가 왕래했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시즈오카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런데 통신사의 존재가 시즈오카 시민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시즈오카현에서 통신사를 통한 역사 재발견의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이후이며, 그 후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등 지방자치체가 관여하는 통신사 관련 사업도 추진되게 되었다.



통신사가 휴게소로 이용한 호타이지 [宝泰寺, 시즈오카시 소재]. 사진 가운데에 있는 석등은 통신사 파견 4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에 만들어진 '통신사 평화 상아등'. 한국의 보물 제282호인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모델로 해서 경북 영주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었다(본 소식지 2013년 여름호, 김양기 '조선통신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선린·평화외교'를 참조). 또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시즈오카시민과 한국 민간 시즈오카현 본부가 서로 힘을 합치면서 통신사를 바탕으로 한 한·일우호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즈오카시의 '시즈오카에 문화의 바람을'이란 시민단체는 통신사 행렬 재현과 통신사 시민강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상호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왔다. 세이켄지가 있는 오키즈의 NPO법인 'AYU드림'도 지역 진흥 활동의 일환으로 통신사 행렬 행사를 정기적으로 해 왔는데, 이 단체는 한국 외교부와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아 조선 국왕의 국서를 운반하는 가마를 재현하여 2013년부터 행렬 행사 때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1711년 통신사를 그린 그림에 있는 가마를 바탕으로 하여 부산에서 제작된 것으로, 통신사의 가마를 이와 같은 시대고증을 통해서 재현한 것은 한·일 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또한 통신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하기 위해 시즈오카 시민을 중심으로 2007년에 '시즈오카현 조선통신사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현재 약 20명의 회원이 있고 시즈오카현과 통신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공부 모임이 열리고 있다. 물론 그 외에도 통신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임이 있을 것이다.

2015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되는 해이다. 시즈오카현과 시즈오카시를 비롯해서 이에야스와 관계가 있는 지역을 연계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공 현창 400년 사업[徳川家康公顕彰400年記念事業]'이 추진된다. 게다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근세 시대의 안정적 외교를 상징하는 통신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즈오카 시민에게는 익숙한 공원과 절이 통신사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일상 속에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유산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사 사행록 <해행 총재> 한국어 번역을 손쉽게 읽을 수 있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그 기록을 읽으면서 통신사 유적지를 찾아가는 것도 현 시대에서 역사를 즐기는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한·일 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시즈오카에서 통신사를 통한 시간여행을 즐기면서 양국의 교류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정치·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금의 양국관계 속에 과거의 역사를 살린 우호의 길이 보일 지도 모른다.



1. 세이켄지 총문(總門)의 현판 '동해명구'. 1711년 통신사 상통사 한덕운의 필적이다. (필자 촬영)
2. 남용익의 한시 편액 '夜過淸見寺'. (필자 촬영)
3. 오키즈 통신사 행렬에서 사용한 복원된 국서 가마. (필자 촬영)



아비루 마사오미 •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사무국장
阿比留 正臣 • 朝鮮通信使緣地連絡協議會 事務局長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雨降って地固まる

対馬で仏像盗難問題が起きた。韓国の裁判所の返還差し止めの仮処分に対馬市民は何を思ったか…。その中で長崎新聞が「雨森芳洲と辛維翰」のエピソードを紹介したコラムを掲載した。そして2014年対馬は新たなステージへとステップアップしようとしている。そして友情の絆がこれまで以上に深く刻まれようとしている…。

작년, 쓰시마(대마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34회 조선통신사 행렬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불상 도난 문제 때문이었다. 불상을 뺏긴 쓰시마 사람들도 사람인 이상 당연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불상이 제작된 곳이 한반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불상은 약 600년간 쓰시마에서 소중하게 여긴 보물이다. 그 누구도 훔친 물건을 섬기거나 하지 않는다.

쓰시마는 지금까지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해왔다. 한·일 우호 협력 관계에서 쓰시마가 해야 할 역할을 계속해온 것이다. 이 행사를 '아리랑 축제'라 부르며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영도구, 울산시 울주군 등 우호 관계에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행사를 점점 확대했다. 우리들의 동료이며 친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상 도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동료들이 바로 손을 내밀어주지는 않았다. 어느 누구도 불상을 쓰시마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친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쓰시마 사람들은 슬펐고 외로웠다. 눈물을 흘렸다. '일본에서 한·일 교류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쓰시마 사람들인데... 지금 까지 뭘 해온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섭섭해 했다.

이것과 관련한 2013년 4월 19일자 나가사키신문의 칼럼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에도시대, 12회에 걸쳐 일본을 찾아와 선린우호의 열매를 맺은 조선통신사. 그들을 접대한 역할로 활약한 사람이 바로 쓰시마번(藩)의 학자 '아메노모리 호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온후한 인물이었다. 사절 측의 무례함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다. 사절 일행을 쓰시마 번주가 초대했을 때였다. 사절단이 번주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사절단이 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쓰시마 섬의 번주 역시 사절단 초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호슈는 "관례를 갑자기 깨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고 사절들에게 화를 냈다. '호슈는 아주 화난 것처럼 큰소리를 쳤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사절의 신유한이 기술했다. 평소 온후한 성격이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화내는 호슈의 모습은 통신사 쪽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호슈와 신유한 간에는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단단한 우정으로 맺어졌다.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실제 신뢰로 연결된다는 좋은 예이다. "불상은 원래 한국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절도라는 범죄를 용인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쓰시마 사람들이 이에 대해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로는 진실한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솔직하게 화를 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 국민의 우정이 깨진다거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증명했다.

이것이아말로 쓰시마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친구들도 이후 바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행사 때 인사로 말을 걸어주거나, 신문에 투고를 하거나, 비공식적이지만 외교부나 문화재청을 통하여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손을 내밀어 주었다. 마음이 통한 것이다. 우리가 지속해온 교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불상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에 답을 해야만 한다. 올해에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부활시켜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일은 그만 과거로 묻어두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 통신사'를 쓰시마에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에 필요한 의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이다. 우리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한다.

또한 조선통신사를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와 부산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공동 추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년 후인 2016년 3월 등록 완료를 목표로, 신청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핵심이 될 사업이다. 이를 위해 체제 정비와 일정 등 실무적인 협의를 했지만 불상 도난 문제가 여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는데 유네스코 조약을 위반하고 있으면 장애가 됩니다."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유네스코의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저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불상 문제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조기 반환을 바랄 뿐이다.

올해 3월 4일 협의가 있었던 밤, 나는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마츠바라 이사장과 존경하는 강남주 선생과 함께 식사를 했다. 한국의 맛있는 북어 요리를 먹으면서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가 끝난 것은 저녁 9시경이었다. 그 이후에 부산문화재단과 2차 회의를 약속했다. 젊은 직원들이 1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금년 계획과 국제문화교류팀 팀장님의 캠핑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회의 중에는 얘기할 수 없었던 본심도 얘기할 수 있는 즐거운 밤이 계속되었다.

물론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최근 쓰시마와 우호 단체인 부산문화재단과 영도구의 결속력이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다. 예전 아메노모리 호슈와 신유한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PS 올해 5월 조선통신사 축제에는 쓰시마 요사코이 팀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사쿠리유기 Ma-u」팀 여성 멤버 3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에 창설한 팀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용두산공원의 큰 무대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고 싶어 한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란다.

혐한 嫌韓 시위와 한류 韓流 문화

嫌韓デモと韓流文化

嫌韓 韓流



최화수 ·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崔和秀 · 奉生文化財団 副理事長

ドラマ<冬のソナタ>の日本国内の大ヒットで、韓国ドラマの編成に熱を上げた日本メジャー5大放送局が韓国のドラマを放送しないようになったのは2010年以来初めてである。ともに、'Kポップ'に対する関心も落ちて最近では日本内の主要放送局の音楽番組に韓国歌手の出演も減った。反韓の雰囲気が高まりつつ、韓流に対する日本内の視線も冷たく凍りついているわけである。韓流ブームは日本で先に風が吹いた。特定の理念や政治的な術数で文化芸術の流れまで塞ぐのは望ましくないと思っている。

사진 출처: KBS공식홈페이지 <겨울 연가>



사진 출처: SBS공식홈페이지 <시크릿 가든>, MBC공식홈페이지 <대장금>, KBS공식홈페이지 <겨울 연가>

“약 4년여 방송했던 ‘한류(韓流) 셀렉트’를 현재 방송중인 <시크릿 가든>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지난달 일본 TBS가 한국 드라마 방송을 끝낸다고 공지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한 후지TV에 이어 NHK도 현재 방영중인 <동이>가 끝나는 5월 이후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겨울 연가>의 일본 내 대히트로 앞을 다투어 한국 드라마 편성에 열을 올렸던 일본 메이저 5대 방송사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게 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최근에는 일본 내 주요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한국 가수 출연도 줄어들었다. 반한(反韓) 혐한(嫌韓)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류에 대한 일본 내 시선마저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한류 10주년을 맞았던 일본. 한류 거리로 유명세를 떨치던 신오쿠보 거리는 근래 격화된 혐한 시위로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혐한 시위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구호도 잔인한 내용으로 치달리고 있어 우리들을 전율케 한다. “한국인을 죽여라.”, “조선인 여자를 강간하라.” 등 무차별적인 폭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류 붐에 맞춰 한국 드라마 방영에 열을 올렸던 일본의 지상파 TV들은 지금 혐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한국 관련 왜곡 보도까지 일삼고 있다. 일본의 출판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일본의 신간 논픽션 부문 베스트셀러 10위권 중 혐한 서적이 3권이다.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나 주간지도 한국을 헐뜯는 글 일색이고, 유력 일간지들도 혐한 보도를 주저하지 않는다. 일본의 혐한 과격시위대는 이제 폭언을 넘어 폭력행위도 불사한다.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무장한 괴한을 앞세워 폭력 범죄까지 저지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극우세력의 폭력적인 혐한 시위나 언론의 노골적인 혐한 보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아베 정권도 혐한 시위와 언론의 우경화를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인 <대장금2>의 제작 소식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SBS 수목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에 이어 <대장금2>에 한류 스타 이영애 출연 소식이 겹쳐져 그 열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중화권 방송사들의 제작비 투자와 판권 계약 등 러브콜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한류 문화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어찌하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류 붐은 일본에서 먼저 바람이 불었다. 이영애의 <대장금>도 2005년 NHK에서 방영, 폭발적인 인기로 한류 붐에 불을 지폈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인 술수로 문화예술의 흐름마저 막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오는 10월 방영될 예정인 <대장금2>가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좋은 파트너십으로!

よきパートナーシップで!  



마츠바라 카즈유키 •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이사장
松原一征 • 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會 理事長

一昨年、釜山文化財団から「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登録」についての提案があった。朝鮮通信使こそ世界に類をみない普遍的価値を有しておりユネスコ登録にふさわしいと思っている。日本側は文化庁、長崎県、対馬市の協力で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がその申請窓口として推進しており、組織内に記憶遺産登録推進部会を設置しその中に学術検討委員会(仮称)を設置する。国家間も重要だが、民間同士による共同作業で登録を成し遂げたい。

제작년 5월 3일,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조선통신사축제'가 개최되었다. 그 교류회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는 부산문화재단의 남송우 대표이사로부터 "조선통신사를 한·일 공동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말을 들으니, 5~6년 전쯤 전임 강남주 대표이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이미 강남주 대표가 답소를 나눈 뒤 헤어지면서 "언젠가 조선통신사를 세계 유산으로 등록합시다."라고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함께 그렇게 합시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이번 남송우 대표이사의 제안에도 역시 동감을 했다.

20여 년간에 걸쳐 조선통신사 교류 사업을 통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면서, 이미 나는 조선통신사야말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할만한 평화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던 시기인 17~18세기, 두 나라 간에는 다름 없는 평

화로운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는 동아시아의 상대적인 안정 실현에 기여했고 또한 문화적 공통성(한자, 유교, 미곡)의 실현에도 공헌했다. 조선통신사는 2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평화·상호불가침·문화 교류를 이행함으로써, 서로를 멀시하는 기존 관계 극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귀중하며 미래에도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유산은 지금까지 대부분 자연유산 또는 문화를 말해왔다. 유네스코의 이 문화 사업은 역사도 오래되고 1972년부터 채용된 세계 각국의 등록 유산의 수도 많아서, 최근에는 수많은 이유로 해마다 등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992년에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사업이다. 부동산 유산을 구성 자산이라고 하는 문화유산보

다는 등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록유산이라면 한·일 모두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통신사는 양국 간의 외교사절로 왕래했지만, 점차 문화사절단으로서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소위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사절단에는 국가에서 선발된 유학자, 한시 작가, 화가, 서예가,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학자나 의사, 화가들은 일행의 일본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들 통신사는 일본 각지에서 교류했고 일반 민중들도 조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해 동경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 교류의 결과, 관련 유산이 양국에 많이 남아 보존되고 있다.

그것은 외교 관계의 기록·문서뿐만 아니라 필담창화, 한시, 통신사 기행문, 서신, 서적을 비롯해 행렬도나 병풍, 풍속화 등 그림 자료도 다양하다. 그래서 한·일 양국 모두 등록 신청이 가능한 구성 자산은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이미 양국 모두 등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일본 측의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겠다. 일본 측에서는 문화청이나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와의 협의를 비롯한 신청 창구 역할을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약칭 - 연지연)가 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청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기록유산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범위한 각 지역을 연합하여 각지에 있는 문화재를 정리하고 서로 간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연지연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일을 처리할 시 정부 간의 불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 연지연에서는 이미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조직 내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회를 설치했으며, 이어 그 안에 학술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청의 지도하에 쓰시마시를 비롯한 나가사키현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일본 각지에 광범위하게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를 등록할 때 구성 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의 문제, 후원 조직인 조선통신사 교류 국회의원 모임과의 연계 조정 문제, 나아가 한·일 정부 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다.

어쨌든 이제 한국 측(부산문화재단)의 향후 진행 상황에 기대하고 싶다. 다만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추진하며 이것이 한·일 공동 신청이고, 이를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청 창구의 확정, 신청서 제출 기간, 구성 자산의 수량 등을 조정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통신사의 의의 중에는 민간 교류의 활성화라는 점도 있다. 물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반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민간끼리의 공동 작업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잘 협력하여 유네스코 등록을 달성하였으면 한다.



조선통신사역사관 뉴스

+ 기특한 아침

조선통신사역사관 토요 역사교실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마다 조선통신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기특한 아침 <토요 역사교실>'을 개최했다. 부산의 역사와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이번 역사교실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현장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말 현장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 간 : 3월 8일 ~ 6월 28일(상반기) 9월 6일 ~ 11월 29일(하반기)
- 시 간 : 10:00 ~ 12:00
- 장 소 : 조선통신사역사관 일원
- 대 상 : 부산시내 초등학생 (1회 20명)
- 신청방법 : 조선통신사역사관 홈페이지 (www.historytongsinsa.com) "신청계시판 → 신청 접수"

+ 조선통신사 납시오!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수요일에 맞춰, 부산의 지역아동센터와 자치단체 유관기관시설 및 교육시설의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 구연동화를 통해 조선통신사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 행사기간 : 2014년 6월 ~ 2014년 12월
- 장 소 : 부산시 전역
- 대 상 : 만 13세 미만의 아동(단체)
- 내 용 :
 - 역사관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10분)
 - 조선통신사를 구연동화형식으로 교육(20분)
 -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체험교실(30분)
- 접수기간 : 2014년 4월 ~ 10월
- 접수방법 : 조선통신사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
- 제출서류 : 2014 조선통신사 납시오 접수 신청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asdfg875@bscf.or.kr), 메일제목(조선통신사납시오(단체명))으로 작성
- 문 의 처 : (재)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팀 ☎ 051)660-0005



참고 : 기특한 아침 <토요역사교실> 2014. 3. 8. 사진

에도시대 일본의 지배계급을 매료시켰던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江戸時代の日本の支配階級に愛された朝鮮通信使文化交流



박화진 · 부경대 사학과 교수
朴花珍 ·釜慶大 史学科 教授



<그림 1>~<그림 2>는 에도시대 대단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조선통신사행의 마상재를 묘사한 인룡(印籠)*들이다. <그림 1>은 두 마리 말의 등 위에서 곡예를 펼치는 '쌍마(雙馬)'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그림 2>는 말 등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마상도립(馬上倒立)'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림 3>~<그림 4>는 마키에양식*에 자개 세공을 가하여 조선통신사행렬 모습을 나타낸 인룡들이다. <그림 3>은 조선통신사행의 정사(正使)가 마상(馬上)을 부는 일행의 모습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 모자와 나팔 등에 자개 세공을 가미하여 화려하게 묘사했다.

<그림 5>~<그림 6>은 마키에[蒔絵] 양식에 자개 세공을 가미한 벼루함과 그 덮개다. <그림 5>는 벼루함 덮개의 표면으로서, 조선통신사행의 제일 선두에 서는 형명기를 든 일행(형명기를 든 통신사, 형명기를 받치고 있는 통신사, 나팔을 끼고 담배를 문 통신사, 그리고 말을 모는 일본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벼루함으로, 상단 중앙에 보이는 도리[鳥居]*와 물결치는 바다, 대형

선박 3척을 비롯한 선박들, 좌측 하단의 성 앞에서 배를 타려는 조선통신사 일행의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에도시대 제작되었던 고귀한 공예품이나 일반 민예품들 중에는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의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도시대 지배계급이었던 무사들의 빼놓을 수 없는 장신구 중 하나인 인룡이나 문장을 쓸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벼루(연적) 등의 작품 속에 나타난 조선통신사행은, 바로 에도시대 지배계급에 미친 한류열풍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출처 :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p.175.

- 1~2 조선통신사도 인룡(朝鮮通信使圖印籠) 마상재(馬上才)
- 3 조선통신사도 인룡(朝鮮通信使圖印籠) 정사(正使)
- 4 조선통신사도 인룡(朝鮮通信使圖印籠) 악대(樂隊)
- 5 마키에 나전 조선통신사도 벼루함 덮개 (蒔絵螺鈿朝鮮通信使圖硯滴蓋)
- 6 마키에 나전 조선통신사도 벼루함

* 인룡 : 허리에 차고 다니는 작은 용기로서 약 등을 넣어 다녔다.
 * 마키에양식 : 옷칠 공예의 하나로 옷칠이 마르기 전에 금·은 가루나 색가루를 뿌려 기물 표면에 무늬를 나타내는 일본 특유의 공예 양식
 * 도리이 : 신사 입구에 세우는 두 기둥의 문